

## 2. 연구 소개

### 산후 유방암의 임신 관련 위험 요인 분석<sup>1)</sup>

#### 1. 연구배경

- 만기 임신은 장기적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,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 위험은 10~15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됨
  - ▶ 임신과 산후 기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환자 수는 적으나, 임신 관련 유방암 (Pregnancy-associated breast cancer, PABC)은 광범위하게 연구됨
- 산후 기간에는 임신 중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는데, 복합적인 요인이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고연령 출산이 PABC 발생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됨
- 유방암 치료법 개발과 조기 발견을 통하여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지만, 산후 유방암 환자는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됨
  - ▶ 임신 혹은 산후 기간 동안 PABC 관련 위험 요인 검사를 통하여 유방암 조기 진단율을 개선시킬 수 있음
- 본 연구에서는 산후 기간 중에 유방암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위험 요인을 분석함

#### 2. 연구방법

-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10~12년에 출산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설계함
- 그룹1(출산 후 1년내 유방암 발생)과 그룹2('10년에 출산하고, '13년까지 추적 관찰)로 구분하여 산후 유방암 발생과 관련성 높은 임신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함

1) Kang et al, Pregnancy-Associated Risk Factors of Postpartum Breast Cancer in Korea: A Nationwide Health Insurance Database Study. PLoS ONE 2016;11(12)

### 3. 연구결과

- 2010~12년에 출산 경험이 있는 1,384,551명(그룹1) 중에서 산후 유방암이 발병한 환자는 317명임. 35세 이상(odds ratio=2.003)이거나, 제왕절개로(odds ratio=1.237) 출산한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으나, 초산(odds ratio, 0.737)은 발병 위험이 낮음
- 2010년에 출산한 여성 457,924명(그룹2)을 2013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, 655명이 유방암이 발병함
- PABC 환자의 유방암 조기 진단은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, 35세 이상 또는 제왕절개 이력이 있는 환자는 유방암 검진을 고려해야 함

[표 1] 2010~12년 출산한 여성의 1년내 유방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정된 오즈비(그룹1)

	오즈비(95% 신뢰구간)
고령산모(≥35years)	2.003(1.567-2.560)
초산	0.737(0.585-0.928)
임신 중독증	1.531(0.874-2.680)
임신성 당뇨병	0.978(0.519-1.841)
쌍태 임신	0.925(0.379-2.257)
제왕절개 출산	1.237(0.986-1.553)

\*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적용

[표 2] 2010년 출산한 여성의 4년내 유방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정된 오즈비(그룹2)

	오즈비(95% 신뢰구간)
고령산모(≥35years)	2.777 (2.356-3.274)
초산	0.673 (0.571-0.794)
임신 중독증	1.050 (0.663-1.663)
임신성 당뇨병	1.368 (0.907-2.063)
쌍태 임신	0.876 (0.451-1.700)
제왕절개 출산	1.211 (1.034-1.418)

\*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적용